최근 17게임 4승…롯데가 왜 이러니?



롯데 자이언츠가 극심한 부진에 빠져있다. 그나마 최근 거둔 4승은 모두 타선 폭발력에 기반을 둔 승리였다. 두 자릿수 득점을 하지 못한 경기에서는 여지없이 패했다. 거인들에게 박빙 싸움 속 승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일까. 지난 20일 SK 와이번스전에서 패한 뒤 덕아웃으로 들어가고 있는 롯데 선수들. 사진제공 | 롯데 자이언츠

두자릿수 득점해야 V…롯데의 슬픈 현주소

선발투수 평균자책점 '6.80' 꼴찌
최근 거둔 4승 모두 10점이상 득점
불펜 불안 여전·타자들 기복도 심해

두 자릿수 대량 득점이 아니면 승리하기 힘들다. 그렇다고 타선의 폭발력이 그 어려운 일을 해낼 만큼 뜨겁지도 않다. 자연히 승리보다 패가 많아진다. 이것이 롯데 자이언츠의 슬픈 자화상이다.

5.36점. 24일까지 KBO리그 평균 득점이자 실점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매 경기 6점을 뽑아내면 '평균적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하지만 최근 롯데는 승리까지 필요한 점수가 평균보다 훨씬 많다. 두 자릿수 득점을 하지 못했을 때는 무조건 패하고 있다.

롯데는 6월 29일부터 최근 17경기에서 4승13패, 승률 0.235를 기록 중이다. 단 한 차례의 연승도 기록하지 못한 채 연패만 길어졌고, 같은 기간 성적은 리그 최하위다. 팀 타율은 0.275(리그 7위)로 최악의 수준은 아니지만 마운드가 무너졌다. 이 기간 롯데의 팀 평균자책점은 5.95로 리그 9위다. 선발투수의 평균자책점으로 범위를 좁히면 6.80까지 훌쩍 뛰며 이는 리그 꼴찌다.

마운드가 버텨주지 못하니 대량득점이 아니면 승리하기 힘들다. 롯데가 최근 거둔 4승은 모두 10점 이상의 득점이 나왔을 때 이뤄졌다. 6일 사직 KT전(11-9 승), 8일 사직 KT전(10-5 승), 17일 잠실 두산전(12-6 승), 22일 사직 SK전(12-4 승)에서는 모두 타자들이 승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내지 못한 나머지 경기에서는 여지없이 패했다.

롯데의 타선이 최악 수준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매 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해낸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타격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격언처럼 투수진이 어느 정도 경기의 밑그림을 그려줘야 한다. 그러나 선발투수가 일찌감치 무너지는 경우가 잦다. 선발진이 호투를 하면 불펜이 무너지고, 가끔 선발과 불펜 모두 버텨주면 그땐 타격이 터지지 않는다. 이러니 승수 쌓기가 어려운 것도 당연하다.

조원우 감독은 24일 사직 NC전에 앞서 "결국 펠릭스 듀브론트와 브룩스 레일리, 외국인 원투펀치가 경기를 세팅해줘야 한다. 그래야 국내 선발진도 그 뒤를 받쳐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듀브론트는 7이닝 1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9회 2사에 '클로저' 손승락이 무너지며 결국 졌다. 한 주의 첫 경기에서 확실한 에이스가 등판했고, 호투했음에도 연장 12회 접전 끝에 패했으니 1패 이상의 충격은 당연하다.

타격은 믿을 게 못 된다지만 지금 롯데가 기댈 곳은 그곳뿐이다. 그러나 그마저도 확실하지 않다. 롯데는 5위 넥센과 5경기차다. 마운드가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 차이는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사직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박민우·차우찬마저 2군행…AG대표팀 빨간불

박민우 가래톳·차우찬 고관절 통증
최정 1군말소 이어 주축 이탈에 비상

출항 직후부터 말이 많았던 2018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이 이번에는 부상 암초에 걸렸다. 25일 경기에 앞서 대표팀 멤버 최정(SK 와이번스), 차우찬(LG 트윈스), 박민우(NC 다이노스)가 동시에 1군 말소됐다. 투타 중심의 컨디션이 우려되는 상황, 대표팀의 행로에 적신호가 켜졌다.

NC는 25일 사직 롯데 자이언츠전에 앞서 박민우를 1군 말소했다. 왼 가래톳 통증 때문이다. NC 유영준 감독대행은 "휴식 차원이다. 열흘간 쉬며 치료에 전념하라고 했다. 전력 질주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박민우 역시 "심각하지는 않다. 감독님께서 배려를 해주신 것"이라고 밝혔다. 빠른 발이 주무기인 박민우의 특성상 가래톳 통증을 말끔히 털어버리지 못한다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에서 제 모습을 보여주기 힘들다.

최정이 전치 3주 부상을 입은 상황에서



NC 박민우



LG 차우찬

박민우까지 제 컨디션이 아니다. 대표팀 내야가 한번에 헐거워질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마운드의 높이도 한 계단 낮아졌다. 차우찬도 이날 잠실 삼성 라이온즈전에 앞서 2군행 통보를 받았다. 차우찬은 최근 4경기에서 28실점으로 고전했다. 이유는 왼 고관절 통증. 힘이 원활하게 전달되지 않으니 공의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대표팀 좌완 선발의 한 축을 맡아줘야 하는 차우찬도 회복까지 제법 시간이 필요하다.

물론 대회가 임박한 것은 아니기에 이들의 엔트리 교체를 논하기는 이르다. 그럼에도 대표팀 선동열 감독의 머릿속은 충분히 복잡할 수밖에 없다. 출범 당시부터 몇몇 선수들을 두고 발탁 자격 논란이 일었던 선동열호의 행로가 여전히 순탄치 않다.

사직 |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

송광민 전력 이탈 한화 새 캡틴에 이성열 선임

한화 이글스 한용덕 감독은 25일 베테랑 외야수 이성열(34)에게 캡틴 완장을 맡겼다. 한화는 그동안 주장으로 선수단을 이끌던 송광민(35)이 허벅지 근육 손상 부상으로 전력에서 이탈하며 캡틴 자리가 비어있었다.

한 감독은 이성열에게 직접 임시 주장을 제안했다. 약 3주간의 주장 임무지만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팀이 치열한 2위 경쟁을 벌이고 있고 지치고 예민해질 수 있는 뜨거운 한 여름을 관통하기 때문에 클럽하우스에는 빼어난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성열은 포수 출신이지만 순천북초~이수중~효천고로 이어지는 학창시절 단 한번도 주장이나 부주장을 맡은 적이 없다. 그러나 프로에서 15번째 시즌을 치르고 있는 베테랑으로 LG 트윈스와 두산 베어스, 넥센 히어로즈를 거치며 다양한 팀 문화를 경험한 장점이 있다. 한 감독이 주목한 이성열의 능력은 '배려'다.

한 감독은 "30대 중반 베테랑이지만 20대 초반 신인 선수처럼 행동한다. 그만큼 항상 자신보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품을 갖고 있다. 자기 자신은 낮추고 후배들에게 공을 돌리는 모습도 지켜봤다. 주장을 제안했더니 깜짝 놀라더라. 중요한 순간 팀을 잘 이끌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글스 클럽하우스의 리더가 된 이성열은 팀 타선에서도 중심 타자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4일 시즌 20호 홈런을 뽑으며 한화 구단 역대 좌타자로는 두 번째, 토종 선수로는 처음으로 2년 연속 20홈런을 기록했다.

대전 | 이경호 기자 rush@donga.com

